

## 통일독일의 도서관 및 정보서비스체제 정비에 관한 연구

金 舜 元\*

### 목 차

1. 서 론 2. 도서관계 및 도서관 현황 2.1 도서관계 동향 2.2 도서관 현황과 문제점 2.2.1 공공도서관 2.2.2 학술도서관 3. 상호대차제도의 정비	3.1 중앙전문도서관의 기능 3.2 전국상호대차제도 3.2.1 지역종합목록 중심의 상호대차제도 3.2.2 직접의뢰에 의한 상호대차제도 3.2.3 통일후의 전국상호대차제도 4. 결 론
---	--

### 1. 서 론

전후 냉전세계의 종식을 반영한 동·서독의 통일과정은 1990년 10월 정치적 통일이 완결되면서 전세계적 이목의 집중과 환영을 받았으나 40여년간의 이질적인 정치, 경제, 사회체제속에서 형성된 양독국민의 이질성을 극복하기 위한 진통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

흡수통일방식으로 이루어진 독일의 통일은 통일과정 자체가 상당히 합리적이고 점진적으로 이루어져 충격을 최소화 했다고는 하나, 다양한 분야에서 어려움이 표출되고 있고 도서관계에도 많은 변화와 진통을 야기시켜 놓았다. 특히 구동독 측의 많은 도서관들이 폐관되어가고 있으며 귀중한 장서들이 유실되고 있다. 또

\* 연세대학교 대학원 문헌정보학과 박사과정, 한국산업인력관리공단 도서관자료실.

한 대부분의 도서관들은 자금과 적절한 자료의 부족으로 변화에 적응하기 위한 학생 및 주민들의 정보요구에 능동적으로 대처하지 못하고 서독측의 지원만을 절실히 요청하고 있다.

이에 대응한 독일도서관계의 최근 관심과 활동노력은 통일독일 전 지역의 효율적인 정보서비스체제 구축의 일환으로 국립도서관이나 도서관연맹 등 각종기관의 통합과 지역네트워크를 통한 서비스체제의 재편성, 국가서지의 통합, 상호협력내실화를 위한 조직정비, 구동독 도서관들에 대한 경영기법 및 자금지원 등에 전념하고 있다.

독일의 통일과 더불어 탈냉전적 국제적 환경은 한반도의 통일문제에도 새로운 변화의 바람을 일으키고 있기 때문에, 우리도 통일후 예상되는 다양한 문제점들을 파악하고 제반 조치들을 점검해두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남북한간의 통일후에는 분단시 양독관계와는 비교도 할 수 없이 상호간 접촉과 교류가 빈약한데서 오는 이질성을 극복하기 위해 정보의 수요도 엄청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도서관계에서도 이에 대한 연구와 관심을 제고시켜야 할 시점에 이르렀다고 보여진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한반도의 통일모색에 있어서 중요한 준거틀로 간주되고 있는 통일독일의 도서관 및 정보서비스체제의 정비상황을 살펴보는 데 주된 관심을 두고 있다. 구체적으로 통일후 독일도서관계의 관심사 및 활동상황, 도서관 현황 그리고 전국적 서비스체제의 구축을 위해 핵심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상호대차제도의 정비를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 2. 도서관계 및 도서관 현황

### 2.1 도서관계 동향

베를린장벽 개방이후 독일의 도서관계는 문헌공급, 자금조달, 인적교류 등 다양한 측면에서의 협력과 더불어 도서관체제의 정비를 위해 노력해 오고 있다. 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시발점으로 1990년 5월 동·서독의 도서관 연맹은 통합을 위한 수정안을 가결하여, 동독사서연맹의 가입자는 구서독에서 직종, 관종

별로 구성되어 활동해온 4개의 사서협회중 각자에 맞는 단체에 가입하여 직업상의 이익을 추구할 수 있도록 하였다(金子緣 1991/6, 3-4).

또한 독일의 통일과 함께 구동독의 많은 도서관들이 폐쇄되고 기능이 약화되었기 때문에 동독지역의 도서관들에 대한 지원의 필요성이 고조되면서, 1990년 독일도서관협회의 분회인 학술도서관협의회는 동독도서관 대표들과 “정치 변화에 따른 통일독일의 도서관 협동”이란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하고 학술도서관에 대한 협력과 지원의 확대방안을 마련하여 추진하고 있다(Braun 1991, 76-77).

공공도서관의 문제에 있어서는 지방분권적 제도하의 분산식 도서관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는 서독과는 달리, 동독은 분산식시스템을 병행하고 있으나 중앙 집중식 시스템을 모체로 유지해오고 있어(Hochsmann 1991, 366), 상호협력에 대비한 시스템적 조화 등 여러가지 문제점이 대두되자 동독의 공공도서관계는 통일에 따른 제반문제의 해결을 위해 1990년 동·서독 교육위원회 산하에 도서관 전문가 그룹을 발족시켰다. 이 전문가 그룹은 통일후 도서관 문제를 다루기 위해 연방정부와 주정부가 결성한 6개의 도서관 실무그룹으로 병합되어 “단기 동독 도서관 발전정책”을 발표하였으며, 1990년 10월 동·서독 도서관 대표들은 공공도서관문제(1그룹), 인력 및 교육문제(2그룹), 대학도서관자료 봉사문제(3그룹), 지역 및 전국 도서관봉사문제(4그룹), 도서관과 정보기술문제(5그룹), 도서관 조직과 법적문제(6그룹)들에 대한 토의를 바탕으로 권고안을 제시하였다. 권고안에서는 특히 동독의 학술도서관 및 대학도서관의 기본적인 장서부족에 대한 심각성과 이에 대한 지원의 필요성이 제기되었으며, 통일후 동독 도서관계가 직면한 가장 심각한 현안들로는 도서관자동화, 정보처리, 정보시스템네트워크, 도서관 운영기법, 재정, 교육, 그리고 서독의 선진정보기술도입 문제 등이 제시되었다(Braun 1991, 77).

동독의 공공도서관에서는 기초적인 실용서나 전문서 및 지금까지 동독에서 소개되지 않았던 세계문학과 민주주의에 대한 정보원으로서 신문, 잡지 등이 요구되고 있다(金子緣 1991/1, 4). 따라서 독일도서관협회는 동·서독 도서관들간의 상호협력을 위한 노력으로서 동독의 정보자유화에 대응하기 위한 우선적 조치로 동독 주요도서관에 서독의 신문을 구비하도록 하는 일부터 시작하여 다양한 도서의 제공에 이르기까지 동독측에서의 정보제공을 개선하고자 하는 노력을 기울여 왔다.

서독의 독일도서관연구소(Deutsches Bibliotheksinstitut:DBI)는 동독의 도서관

중앙연구소(Zentralinstitut für Bibliothekswesen: ZIB)와 협력하여 동독도서관리스트의 작성과 통계, 그리고 동독이 소장하고 있는 연속간행물을 서독의 잡지데이터뱅크인 ZDB(Zeitschriftendatenbank)에 수록하는 작업에 착수했다.

1990년 3월에는 독일도서관연구소에서 회의가 개최되고 당면조치로 상호대차에 관한 약속이 이루어져 동·서 각 지역간에 파트너 관계가 정해졌다. 동독 각 지역의 중앙도서관에는 잡지데이터뱅크 등 서독측의 피쉬목록이 준비되고 동독의 목록에 없는 자료가 있으면 이 목록을 찾아 파트너 지역의 도서관에 발주하는 계획이 수립되었다.

1990년 4월 독일도서관연맹은 동독대표를 늘린 조정위원회 회의를 개최하여 베를린 각서(Berliner Memorandum)를 발표하였는데, 주된 내용은 “모든 종류의 도서관을 지원하며 문헌공급이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게 독일도서관연맹과 독일도서관연구소, 그리고 동독의 도서관중앙연구소가 조정을 행한다. 동독도서관의 발전에는 서독측의 방법과 수단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고 모든 수준에서 교환 프로그램이 필요하다. 특수한 경우는 동·서독의 전문가가 상담하여 대처해야 할 필요성이 있으며, 정보를 요구하는 동독인들이 동독은 물론 서독측 도서관에도 범람하고 있기 때문에 이를 충분히 수용하기 위해서는 주(州)나 연방정부의 원조가 절실히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에따라 연방정부는 1990년 “전문정보지원계획 1990-1994”를 발표하여 도서관관리체계의 재검토와 효율적인 협력의 증대 및 필요한 자금지원을 확대할 것임을 천명하고 지원의 폭을 넓혀가고 있다(Stroetmann 1991, 161).

재정문제와 관리효율을 위한 유사한 도서관의 통폐합 및 국가서지의 통합도 독일도서관계의 큰 관심사였는데, 서독의 독일도서관(프랑크푸르트)과 동독의 독일도서관(라이프치히), 베를린의 독일음악도서관이 1990년에 조직적인 통합이 이루어져 새로운 독일도서관으로 재편성 되었다(春山明哲 1993, 545).

통합전 프랑크푸르트의 독일도서관(Deutsche Bibliothek)은 독일분할의 고정화와 함께 독일을 대표하는 국제적 정보센터로서의 위치를 굳혔으며, 이미 1960년대 초에 컴퓨터를 도입하고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여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었던 반면, 라이프치히의 독일도서관(Deutsche Bucherei)은 동독출판물의 보존도서관으로 동독의 서지통정 및 서지업무의 본부사무소 기능을 담당해 왔으며 1979년 컴퓨터화를 시도하였으나 실패하여 1945년이전 문헌의 풍부함을 자랑하면서도 서지정보서비스에서는 크게 뒤쳐지고 있었다(이진상 역 1983, 55-56). 또

한 프랑크푸르트는 독일서지(Deutsche Bibliographie), 라이프치히는 독일국가서지(Deutsche Nationalbibliographie)라는 비슷한 타이틀의 국가서지를 출판해 왔는데 이들 도서관의 통합은 양관의 단점을 보완함은 물론 국가서지의 통합이라는 측면에서도 큰 의의를 갖는다고 볼 수 있다. 양관의 직무분담은 각각의 전통대로 라이프치히는 서적수집 및 출판부문에, 프랑크푸르트는 정보기술과 커뮤니케이션 기술에 중점을 두며, 국가서지는 1991년부터 프랑크푸르트에서 작성하고 있다(戶田典子 1991/3, 4-5).

한편 구동독에서 상호협력활동의 중심적인 역할을 맡아온 상호대차·중앙목록연구소(ILZ)도 폐지되어 새로운 베를린국립도서관 서지서비스부분의 일부로 편입되었다. 이로써 상호대차·중앙목록연구소에서 편집해온 구동독소장 외국잡지의 중앙목록(ZKZ)은 서독의 잡지데이터뱅크(ZDB)로 계승되었으며, 외국도서의 중앙목록(ZKM)은 1990년에 중단되어 1991년 이후 입수자료에 대해서는 베를린과 브란덴부르크주 것만으로 계속되고 있다. 이것은 1994년말까지 종래의 베를린종합목록과 함께 새로운 베를린·브란덴부르크 종합목록으로 통합될 예정으로 있다.

독일도서관계를 고심케한 또다른 일은 구동독사서들의 자격인정(평가)에 관한 지침마련이다.

통일에 앞서 양독정부는 공식통일조약을 체결하였는데, 이때 각 훈련과정의 수준에 따라 대부분의 전문직에 대한 총괄적인 상호성을 인정하기로 하였다. 따라서 동·서독간에 전문직 자격과 수준을 결정하기 위해 사서들을 교육시킨 기관들의 교육과정과 교육내용에 대한 비교·검토가 이루어졌으며, 교육수준에 입각해 전문직 자격이 상호 인정되고 있다.

1991년 10월 각 주(州)문화장관들의 회의에서는 사서자격에 관한 다음의 권고안들이 승인되었다. 즉, 동독도서관의 준사서는 관중에 상관없이 통일독일의 도서관 보조원(library assistant)자격을 인정하며, 고등교육기관(post-secondary institution)에서 3-4년간 사서직 교육과정을 이수한 사서들은 서독의 고급사서(Diplom-Bibliotheker)자격을 인정한다. 동베를린의 정보학·도서관학 전문대학에서 교육과정을 이수한 정보전문가(Informator)는 고급도큐멘타(Diplom-Documentar)의 자격을 인정하기로 하였다(Rusch 1992, 129-135).

한편 통일후 독일이 겪는 가장 심각한 문제중의 하나는 실업문제로 볼 수 있다. 그래도 1991년 6월까지의 동독의 고용촉진법에 의해서 근로자가 해고로부터

보호를 받았기 때문에 실업율은 약10%를 유지할 수 있었으나, 이후 거의 모든 분야에서 실업율은 계속 늘어나고 있으며(전광석 1992, 1524), 도서관의 사서들 역시 예외가 아닌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새롭게 변화된 경제·사회적 환경하에서 구동독측 기업체 및 공공기관(개인, 영리, 비영리기관 포함)들의 정보관리분야 부서수는 1989년의 1,500개에서 1993년에는 250개 기관으로 83.4%가 감소되었으며, 직원수도 6,000명에서 750명으로 무려 87.5%가 감소된 것으로 나타나(Herget 1993, 467), 정보관리분야 종사자들의 입지가 크게 위축되었음을 확인시켜 주고 있다.

통일과 함께 동독의 많은 도서관들이 통합 또는 폐관됨에 따라 직장을 잃는 사서들이 증가되고 있기 때문에, 이들의 취업을 위한 재교육과 현직 사서들에 대한 재교육 문제는 자연히 독일도서관계의 주요 관심영역으로 비중있게 다루어지고 있다. 특히 구동독의 사서 및 정보전문가들은 CD-ROM, 온라인검색, 원거리통신, 마이크로컴퓨터 이용, 도서관네트웍 등 최근의 기술적 발전에 대한 지식과 경험이 미흡하여 재교육과 계속교육의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는 것이다.

현재 독일도서관연구소와 기타 사서 및 도큐멘탈리스트 훈련기관들이 이러한 교육과정과 견학의 기회를 제공하고 있는데, 이들은 특정 형태 도서관에서의 업무 또는 특정 도서관 업무에 초점을 맞춘 단기(1주이하)과정이며, 연방노동사무소에서는 장기(6-12개월)교육과정을 제공하고 있다.

## 2.2 도서관 현황과 문제점

공공도서관 및 학술도서관의 정비와 활동방향 재정립도 독일도서관계의 주요 관심현안으로 통일이후 주, 연방의 전문가그룹이 검토하여 왔으며, 동·서독의 도서관 현황과 문제점 파악을 우선 관심영역에 포함시켜 개선활동을 진행시키고 있다.

연방정부는 1991년 문화진흥촉진프로그램의 예산을 통과시켜 장서구입, 건축과 개축, 자동차문고, 계속교육프로그램 등으로 구성된 동독공공도서관의 하부구조 개선프로그램을 지원하고 있으며, 학술도서관에도 학술도서의 구비와 정보서비스 능력을 서독의 수준으로 끌어올리기 위한 예산확충에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쏟고 있다(노문자 1994, 17-19).

### 2.2.1 공공도서관

1989년도 전임직원을 둔 서독의 도서관수는 1981년 당시의 4/3배에 달하며, 직원수도 1980년과 비교하면 96.5% 증가되어 있으나 대출수가 많기 때문에 직원당 부담은 연간 19,000권을 넘고 있다. 수입도서수는 4,500만권이지만 실질적인 구매력으로 본다면 향상되는 추세이나 1980년 당시의 81.3%의 상태에 머물러 있다(金子緣 1991/7, 2-3).

동독의 도서관에 대해서는 정확한 비교통계는 없는데 부락(部落)도서관, 농촌 지역중앙도서관, 시(市)도서관 등 대단히 많은 도서관이 있고, 베를린을 중심으로 각 지역도서관을 연결하는 네트워크가 정비되고 있다.

주민1인당 자료구입비도 동독은 3마르크로 서독의 2.69마르크보다 명목상 많은 것으로 파악되고 있으나, 문제는 동독의 도서관은 동독자료중심이고 서독의 자료가 부족하다는 것이다.

동독주민은 급격한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새로운 지식의 요구가 많으며, 특히 민주사회의 적응에 필요한 정치, 경제, 법률, 컴퓨터 서적류와 도피문학, 서방세계에 관한 여행서적 등을 많이 요구하고 있다.

따라서 동독의 도서관계에서는 통일후 연방정부의 지원으로 사회주의체제에 길들여져 있던 주민들의 새로운 요구에 부합하는 장서들을 확충하는데 심혈을 기울여 왔다. 독일도서관연구소와 통합된 동독의 도서관중앙연구소는 동독공공도서관들이 구입도서를 용이하게 선정할 수 있도록 공공도서관을 위한 선서(選書)리스트를 정기적으로 배포하는 등 동독공공도서관의 장서구성 정책에 지대한 공헌을 하고 있다.

### 2.2.2 학술도서관

1989년 신규 구입도서수를 살펴보면 서독은 학생당 2.4권인데 비해 동독은 5.2권으로 서독을 상회하고 있으며, 인원적인 측면에서도 서독은 직원당 학생수가 176명인데 비해 동독은 54명으로 1/3이하 수준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대출수에서는 서독은 직원당 약5,000권인데 비해 동독에서는 약3,500권으로 서독의 1/3수준이며 학생수와 비교할때 동독쪽이 이용도가 높다. 그러나 동독의 통계는 서독에서는 통계대상으로 하지않는 소규모 도서관도 포함하고 있고 도서도 할인가격으로 구입하고 있어 외형상 통계결과는 좋게 나타난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동독의 학술도서관에 있어서의 큰 문제점은 역시 서독문헌의 부족이다. 따라서 서독의 원조프로그램으로 신문의 무료제공 등 파트너 관계에 있는 도서관과 주, 연방, 민간기금에 의한 지원프로그램이 이미 실행되고 있다. 교육학술성의 지원 프로그램은 학생1인당 10-15마르크의 자금을 각 대학에 주어 대학도서관이 스스로 서점에 주문하도록 하는데, 장서확충만이 아니고 구입노하우의 획득이나 서적유통의 정비에 유용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학술협의회(wissenschaftsrat)의 3억마르크 지원 계획은 장서의 소급적인 확충에 앞으로 12년간 분할사용토록 계획되었다.

또한 학술도서관은 복사기, 컴퓨터, 기계화를 위한 설비와 장서확충에 대응할 수 있는 공간 확보 등이 시급한 문제로 제기되고 있다. 일반적으로 기능과 규모가 유사한 도서관을 비교할때 동독도서관들은 서독도서관들에 비해 인원적인 면에서는 충실하지만 관리기술의 낙후와 요구가 많은 교과서, 실용서 및 자본주의의 적용에 필요한 다양한 교양서의 부족이 가장 큰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결국 통일후 복합적인 문제점속에서 명목상으로만 유지되고 있는 학술도서관수도 상당수 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기때문에 이를 정비하고 지원하기 위한 노력이 지속적으로 전개되고 있다(Griebel 1992, 484-485).

특히 국가협동수서정책인 분야별 분담학술도서수서계획(Sonderssammelgebietsprogramm:SSG-Programm)을 지원하는 독일학술진흥회(Deutsche Forschungsgemeinschaft:DFG)의 도서관분과위원회에서는 동독의 학술인구 수준을 서독 수준으로 끌어올리기 위해 동독학술도서관의 지원에 착수하였으며, 폭스바겐(volkswagen)재단도 동독의 학술연구발전을 위해서는 부족한 학술자료의 확충이 절실하다고 보고 동독대학들에 대한 지원을 제공하고 있다(노문자 1992, 337-340).

### 3. 상호대차제도의 정비

동서독의 통일과 함께 도서관 활동의 여러영역에서 독일을 포괄하는 문헌공급시스템의 재편성이 진행되어 왔지만, 기본적인 방침은 구서독의 모형을 구동독측에 확대시켜 가고자 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1979년에 제정된 상호대차규칙(Leihverkehrsordnung:LVO)은 독일국내의 상호대차(ILL)를 지역내에서 발생한 일반적인 문헌의 수요에 대응하는 지역상호대차와 연구·교육을 위한 학술문헌의 공급을 목적으로한 전국상호대차로 대별하고 있으며 상호대차도서관들 사이에는 비용을 부과하지 않기로 규정하고 있다(Polden 1989, 277).

또한 상호대차규칙 범위밖의 도서관들끼리 특별한 협정을 맺어 직접처리를 하는 상호대차도 실시되고 있는데, 대표적인 도서관은 1950년대 후반 산업계로부터의 요청에 의해 설립된 중앙전문도서관이다. 중앙전문도서관은 상호대차규칙을 기초로한 상호대차서비스 외에 팩스에 의한 신청접수 혹은 DIALOG나 잡지데이터뱅크(ZDB)등 각종 정보검색서비스와 연결된 문헌공급서비스를 전개하고 있다.

따라서 독일의 문헌공급시스템은 중앙전문도서관의 활동과 상호대차규칙을 토대로한 구서독중심의 상호대차제도를 살펴보는 것이 유익하다고 볼 수 있다.

### 3.1 중앙전문도서관의 기능

제2차 세계대전으로 심각한 타격을 입은 독일에서는 전후의 경제부흥을 일으키기 위해 전국적인 규모로 학술문헌을 효율적으로 수집하여 정비할 필요가 있었다. 때문에 독일학술진흥회는 1949년이래 외국의 학술도서 및 잡지를 국내에서 망라적으로 수집정비하기 위해 분야별로 도서관을 지정해 분담수집을 도모하는 수서계획(SSG-계획)을 추진하고 있다.

SSG-계획에서는 정신과학을 포함한 모든 학문분야를 대상으로 하고 있지만, 그중에서도 최신 연구성과의 신속한 정보제공이 필요한 학문분야에 대해서는 4개의 전문분야를 지정해 각 분야별 문헌을 집중적으로 수집하여 전국서비스를 실시하는 중앙전문도서관을 설립하였다.

중앙전문도서관은 SSG-계획 참가도서관들과 더불어 독일에서 분야별 전국적인 문헌공급을 담당하는 기관으로서의 위치를 확고히 하고 있는데, 주요역할은 전문분야의 학술잡지 및 도서의 망라적 수집(기술보고서, 회의록, 정부간행물, 통계, 회사업무보고서 등)과 서지·목록작성, 그리고 독일의 전통적인 상호대차형태 이외의 직접주문을 통한 학술연구 및 산업계의 요청에 대응한 신속한 정보제공이다.

최초의 중앙전문도서관인 기술정보도서관(TIB)은 1959년 하노버 대학도서관과 병설의 형태로 설립되었으며 기술 및 공학, 화학, 수학, 물리 등 기초과학 영역을 포함하는 중앙전문도서관으로 전국적 서비스와 대학도서관으로서의 봉사활동이라는 이중적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牧村正史 1992, 14-18).

장서중에는 통상적인 유통경로로는 입수가 쉽지않은 독일과 미국의 학위논문 및 레포트류, 독일의 미간행 기술보고서, 회의록, 동방어의 미간행 번역논문, 소련의 미간행논문(기탁), 규격 등의 자료가 포함되어 있다. 특히 독일국내 간행이 아닌 기술보고서를 중심으로 수집하고 있고, 수집된 자료에 대해서는 기술 및 자연과학연구보고(FTN)라는 계간의 서지를 작성함과 동시에 데이터베이스화를 추진하고 있다.

데이터베이스는 세계최대의 과학기술정보검색시스템인 STN(The Scientific and Technical Information Network)International을 통해 온라인으로 제공하고 있으며, 서지는 유럽공동체 참가국의 협력에 의한 회색문헌정보시스템 SIG-LE(System for Information on Grey Literature in Europe)과 미국의 국립기술정보서비스(NTIS)에도 제공하고 있다.

우리 국내에서도 전세계적 대형네트워크망인 인터넷(INTERNET)를 통해 미국의 CAS(Chemical Abstracts Service), 독일의 FIZ-Karlsruhe, 그리고 일본의 과학기술정보센터(JICST)가 공동으로 운영하고 있는 STN International의 접근이 가능하여 관련정보의 검색이 용이하다.

의학중앙도서관(ZBM)은 1969년 쾰른대학 의학부도서관을 모체로 설립되었으며 자료수집분야는 의학, 생명과학, 의학적 관점의 환경문제 등으로 독일의 문헌을 중심으로하나 구미, 일본, 러시아 문헌과 정부간행물, 회의록, 학위논문도 수집 대상으로 한다.

의학중앙도서관은 긴밀한 협력관계에 있는 독일의학정보 및 도큐멘테이션연구소(DIMDI)의 의학정보데이터베이스 원문제공서비스에 역점을 둔 활동을 하고 있는데, 현재 온라인주문은 DIMDI, STN International, DBI의 ZDB가 주된 대상이 되고 있다.

경제학중앙도서관(ZBW)은 1966년 쾰 대학의 세계경제연구소에 설치되어 주로 세계경제, 국민경제학, 경영학관계 등 경제분야 문헌을 수집제공하는 기능을 수행하며 국제연합(UN),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유럽경제공동체(EEC), 동유럽 경제상호원조회의(COMECON) 등 국제기관 출판물 수집에 중점을 두고 있다.

서지서비스로는 경제학서지를 작성하고 있으며, 1990년부터는 새로운 서지시리즈로 독일통일 등 최근의 문제를 대상으로 하는 킬현대경제서지속보(Kieler Schnellbibliographien zu aktuellen Wirtschaftsthemen)를 간행하고 있다.

또한 1986년부터 독자적인 도서관전산화시스템인 경제학정보시스템 ECONIS(Economic Information System)를 가동시켜 경제학서지의 전산처리와 온라인검색서비스 및 SDI서비스 등을 실시하고 있으며, 유럽경제학문헌데이터베이스 구축을 위한 국제협력사업(HELECON on CD-ROM)의 일환으로 폴란드의 헬싱키경제대학도서관(HELECON)과 공동으로 ECONIS데이터베이스의 CD-ROM화를 추진하고 있다.

상호대차는 통상적인 문헌복사 신청외에 팩스에 의한 직접주문과 잡지데이터뱅크를 통한 온라인 주문이 가능하다.

농학중앙도서관(ZBL)은 1962년 본대학의 농학부도서관을 모체로 설립되었으며 본대학 농학도서관으로서의 기능과 동시에 농학분야의 전국서비스를 실시하는 중앙도서관으로 활동하고 있다.

독일문헌과 영미문헌을 중심으로 동구제국과 아시아·아프리카지역 등 제3세계의 문헌을 망라적으로 수집하고 있으며, 22개 대학도서관과 전문도큐멘테이션 기관이 참가하는 식량, 농업, 임업전문정보시스템 FIS-ELF(Fachinformation system fur Ernährung Land und Forstwirtschaft)의 원문제공기관으로서의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표1>은 독일도서관연구소에서 발행하고 있는 1990년 도서관통계(DBS)의 중앙전문도서관 상호대차 현황이다(牧村正史 1992, 13).

< 표 1 > 중앙전문도서관 상호대차 현황

	TIB	ZBM	ZBW	ZBL	합 계
접수총건수	447,448	395,152	31,395	35,333	909,328
구서독에서의 접수건수	177,557	200,099	30,026	29,584	437,266
순수접수건수	378,483	335,817	22,358	25,879	762,537
문헌복사건수	334,483	315,160	12,203	20,695	682,541

주)순수접수건수는 접수총건수에서 사절분 제외. 현물대차와 문헌복사 포함.

중앙전문도서관 전체에서 연간 약91만건의 상호대차 요구를 접수하고 있고, 1990년에 실제로 제공된건수(순수한 접수건수)는 약76만건, 문헌복사는 약68만건으로 나타나고 있다.

독일도서관통계에 의하면 1990년의 경우 동·서독의 학술도서관 전체의 순수접수건수가 약283만건, 문헌복사가 약169만건이다. 따라서 중앙전문도서관은 독일전체학술도서관에서 상호대차의 순수접수건수가 약27%, 문헌복사건수는 약41%를 차지하고 있어 독일의 문헌공급시스템에 있어서 중요한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는 것을 짐작할 수 있다.

접수총건수에 대한 구서독의 접수건수가 차지하는 비율은 기술정보도서관이 40%, 의학중앙도서관이 51%, 경제학중앙도서관이 96%, 농학중앙도서관이 84%인데, 기술정보도서관과 의학중앙도서관은 구동독을 포함한 외국에서의 문헌 수요가 높아지고 있다. 이는 다이알로그 등을 통한 온라인 정보검색서비스와 함께 온라인주문 등 국제적인 활동을 적극적으로 행하고 있다는 것을 반영하는 것으로도 볼 수 있다.

독일의 문헌공급시스템에 있어서 중앙전문도서관은 학술잡지를 중심으로 주제별 문헌의 수집과 제공을 실시하는 중요한 기능을 맡고 있으며, 데이터베이스 협력기관으로서의 역할은 물론 데이터베이스 구축을 통해 온라인주문에 의한 원문헌의 신속한 제공 등 정보 및 문헌공급서비스를 확대시켜가고 있다.

### 3.2 전국상호대차제도

독일은 대체로 지역종합목록을 기반으로하여 지역수준과 전국수준의 도서관 협력활동을 실시하고 있으며, 지역종합목록을 중심으로 국립도서관과 학술도서관 및 공공도서관, 전문도서관 등 관종을 초월한 전국적 상호협력체제를 유지해 오고 있다.

#### 3.2.1 지역종합목록 중심의 상호대차제도

구서독에서는 상호대차를 위해 7개의 지역종합목록이 형성되어 있는데, 조직으로서의 지역종합목록을 중앙목록(Zentralkatalog:ZK)이라 부르며, 지역도서관의 장서현황에 대한 정보센터의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전국수준의 상호대차제도에 참가하기 위해서는 질높은 도서관서비스를 실시할 수 있는 직원의 배치와 서지도구 등 이용체제가 정비되어 있어야 하며, 각 도서관은 중앙목록에 의한 심사와 관할주 교육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참가 형태는 시스템에 직접참가하는 방법과 지도도서관(Leitbibliothek)을 통해 간접적으로 참가하는 방법이 있는데, 통상적으로 대학도서관이나 비교적 대규모 공공도서관 혹은 지역의 납본도서관인 주립도서관 등 지역에서 중심적인 도서관들이 지도도서관을 맡고 있다.

지도도서관의 구체적인 기능으로는 관할하의 도서관으로부터 상호대차의 의뢰에 대해 자관의 장서에서 문헌을 제공함과 동시에 자관에서 제공할 수 없는 문헌에 대해서는 의뢰표를 중앙목록에 중개하는 것이다.

1990년 12월까지의 구서독의 전국상호대차제도에 참가하고 있는 도서관수가 601개 도서관이었다. 직접참가관이 174개관, 간접참가관이 427개관이며, 직접참가관중 69개관이 지도도서관을 맡고 있었는데(牧村正史 1993, 100), 1991년 1월에 개최되었던 독일도서관연구소 이용위원회와 중앙목록회의(Konferenz der ZentralKataloge:KZK), 그리고 도서관중앙연구소간의 삼자에 의한 합동회의를 기초로 베를린을 포함한 구동독 각 주에서 지도도서관이 지정되고 있다. 이는 1979년의 상호대차규칙에서 규정한 지도도서관에 상응하는 것으로 총23개관(베를린:3개관, 브란덴부르크주:5개관, 메클렌부르크·포어포메른주:3개관, 작센주:5개관, 작센·안할트주:3개관, 튀링겐주:4개관)이 각 지역내의 공공도서관과 학술도서관으로부터 의뢰된 상호대차 요구를 처리한다.

참가를 인정받은 도서관은 각 지역을 관할하는 중앙목록이 유지하는 상호대차 리스트(Leihverkehrsliste)에 등록되는데, 중앙목록은 참가관 리스트의 유지·보수 등 상호대차제도에 관한 관리업무와 지역내 참가관의 종합목록 작성, 지역내외로부터의 상호대차 요구에 대한 소장조사와 참가관으로의 연락 및 조정을 주요 기능으로 한다.

전통적으로 지역종합목록을 중심으로한 상호대차 과정은 우선, 이용자는 요구를 해당지역 도서관에 접수하는데, 만족스런 결과를 얻지못했을 때에는 지역의 타도서관, 그리고 지역의 지도도서관에 의뢰한다. 여기서도 해결되지 못한 요구는 중앙목록으로 보내어져 소장조사를 한후, 소장관으로 의뢰표가 송부되어 요구문헌이 제공된다(Neubauer 1984, 122).

지역종합목록으로는 구서독의 바덴뷔르템베르크 중앙목록과 카이에른, 베를린,

헤센, 니더작센, 북독일, 노르트라인·베스트팔렌 중앙목록이 있으며, 구동독은 상호대차·중앙목록연구소, 메클렌부르크·포어포메른중앙목록, 작센·안할트, 작센(드레스덴), 작센(라이프치히), 튀링겐 중앙목록이 형성되어있으나, 상호대차·중앙목록연구소는 최근 베를린 국립도서관 서지서비스부분의 일부로 편입되었다.

한편 지역내에서 제공되지 못한 문헌에 대해서는 전국수준의 상호대차에 의뢰하게 되는데, 이는 특히 학술문헌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다.

지역상호대차로부터 전국상호대차로 보내지는 의뢰표는 지도도서관이나 중앙목록에서 전국상호대차(Uberregionaler Leihverkehr)라고 도장이 찍혀 회부되는데, 중앙목록에서는 통상 다른 중앙목록을 3개 지정해 의뢰표를 송부하며 필요시는 7개 중앙목록 모두에게 회송하고 있다. 이때 회송하는 순서에 대해서는 해당 중앙목록이 의뢰표에 경로를 지정하게 되어있어, 의뢰표의 뒤에 중앙목록의 일람표가 인쇄되어 있고 거기에 순번을 붙이고 있다.

접수받은 중앙목록에서는 종합목록으로 소장조사를 실시하여 지역내에 소장되어 있으면 소장관으로부터 문헌을 송부하게 되지만, 소장이 확인되지 않으면 지정된 다음 중앙목록으로 의뢰표를 회부한다.

중앙목록에서는 지역내 소장관의 우선순위를 기초로 소장관을 선택하고 있다. 이때 각 중앙목록에서 우선순위를 결정하는 방법은 의뢰관과의 근접성, 지도도서관 우선, 지역내 자동차서비스 순회경로 등 지역상황을 반영해 각기 다른데, 일반적으로 복수소장도서 및 잡지의 의뢰우선순위로는 첫째, 해당지역 도서관 또는 각 중앙목록에서 제시하는 우선순위. 둘째, SSG-도서관. 셋째, 타지역 도서관순으로 정해지고 있다. <표2>는 1991년 지역종합목록을 중심으로한 상호대차 통계이다(牧村正史 1993, 105).

표에서 볼 수 있듯이 1991년 독일전체에서 발생한 상호대차는 대략 280만건으로 동독에 비해 서독쪽이 압도적으로 많은 상호대차가 실시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발생한 상호대차에서 대략 절반은 중앙목록을 경유하고 있고, 이미 중앙목록을 경유하고 있는 상호대차에서 종합목록으로 소장이 확인된 것은 평균 40% 인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 3.2.2 직접의뢰에 의한 상호대차제도

독일의 상호대차제도는 중앙목록을 통한 간접처리가 전통적인 것인데, 중앙목록을 순번으로 돌리기 때문에 상호대차의 소요시간이 경우에 따라서는 수개월

〈 표 2 〉 지역종합목록 상호대차 통계

지역 종합 목록	각지역에 서발생한 상호대차	지역종합목록을 경유한 상호대차					
		지역 상 호 대 차	전국상호대차		합 계	지역종합 목록에서 소장이 확인 된 건수(%)	
			해당 지역	타지역 ①			
구 서 독	바덴뷔르템베르크 중앙목록	541,643		81,774	104,937	186,711	82,929(44.4%)
	바이에른 중앙목록②	395,398	9,606	93,976	147,838	251,420	143,735(57.2%)
	베를린중앙목록	96,761	2,124	10,012	82,543	94,679	11,863(12.5%)
	헤센중앙목록	319,928		50,111	89,956	140,067	36,729(26.2%)
	니더작센중앙목록②	332,497	16,669	162,688	142,966	322,323	192,199(59.6%)
	북 독일중앙목록②	150,909		63,830	75,353	139,183	43,907(31.5%)
	노르트라인· 베스트팔렌중앙목록	740,508	2,660	94,212	72,594	169,466	42,689(25.2%)
소 계	2,577,644	31,059	556,603	716,187	1,303,849	554,051(42.5%)	
구 동 독	상호대차· 중앙목록연구소③	③		2,128	52,291	54,419	15,783(29.0%)
	메클렌부르크· 포어포메른중앙목록	44,452		16,762	1,347	18,109	2,771(15.3%)
	작센·안할트 중앙목록②	53,726		26,935	21,760	48,695	9,457(19.4%)
	작센중앙목록 (드레스던)	82,788		15,354	16,463	31,817	3,730(11.7%)
	작센중앙목록 (라이프치히)						
튀링겐중앙목록	58,209		12,072	11,451	23,523	5,606(23.8%)	
소 계	239,175		73,251	103,312	176,563	37,347(21.2%)	
합 계	2,816,819	31,059	629,854	819,499	1,480,412	591,398(39.9%)	

주) ①여러 지역종합목록을 경유하는 상호대차도 포함된다. ②지역종합목록의 건수에는 각기 바이에른주립도서관, 괴팅겐주립·대학도서관, 함부르크주립·대학도서관, 독일국립도서관(베를린), 작센-안할트대학·주립도서관에 대한 의뢰건수를 포함한다. ③베를린종합목록에 포함된다.

걸리는 경우도 있어 느리고 비효율적이라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Neubauer 1984, 122). 따라서 보다 신속한 처리가 가능한 직접대차의 필요성이 확산되었다. 직접대차는 이용자의 요구가 직접 해당분야의 국립전문도서관, SSG-도서관 또는 특수전문도서관에 보내어지고, 요구자료가 직접 이용자에게 우송되는 서비스로써 이용자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다(노문자 1992, 321).

1987년 중앙목록회의와 독일도서관연구소의 이용위원회 합동회의에서는 전국적인 소장목록 이용에 관한 권고의 일환으로 전국상호대차시 직접의뢰의 구체적인 방법이 권고된 바 있다.

주된 취지는 해당지역의 종합목록에서 소장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에 전국상호대차를 행할 것을 전제로 각 도서관에서는 잡지데이터뱅크나 전국종합목록(Verbundkatalog:VK)을 시초로 지역별, 주제별 각종 종합목록의 이용을 촉진함과 동시에, 이들 도구로 소장이 확인될 경우 중앙목록을 경유하지않고 직접 그 소장관으로 의뢰표를 송부하도록 하여 상호대차의 신속화와 중앙목록 업무의 경감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것이다.

전술한 바와같이 독일에서는 전후 전국수준의 문헌공급시스템 구축의 일환으로 독일연구협회의 지원하에 외국문헌을 중심으로한 분야별분담수서계획이 진행되어 오고 있는데, SSG-계획에서는 110가지 주제분야를 36개의 도서관이 분담해 전국수준의 상호대차를 전제로한 자료의 수집을 행하고 있다. 따라서 중앙목록을 경유하는 통상적인 상호대차의 경우에 있어서도 SSG-도서관은 우선적으로 지정되어 있다. 요청되는 문헌이 확실히 SSG-도서관 수집분야의 것이라면 목록류에서 소장이 표시되어 있지않은 경우에도 직접 그 담당관으로 상호대차를 의뢰할 수 있다.

### 3.2.3 통일후의 전국상호대차제도

통일후 전국상호대차제도는 1990년 3월 독일도서관연구소(DBI)에서 개최된 회의에서 동·서독간에 상호대차에 관한 합의가 체결되어 이를 근거로 실행되고 있다. 본 합의는 구서독의 도서관으로부터 구동독 도서관으로의 문헌공급방법에 중점을 둔 것으로 동·서의 각 중앙목록을 파트너로 하고 그 파트너를 통해 상호대차가 실행되도록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또한 동·서간의 상호대차 업무를 원활하게 실시하기 위해 동독측의 중앙목록은 기본적인 목록으로 잡지데이터뱅크(ZDB)와 전국종합목록(VK) 및 각 파트너지역의 종합목록(특히 마이크



〈표3〉 동·서독 지역종합목록 파트너

구 서 독	구 동 독
바덴뷔르템베르크 중앙목록 바이에른 중앙목록	작센중앙목록(드레스덴) 작센중앙목록(라이프치히)
니더작센 중앙목록	작센·안할트 중앙목록
헤센 중앙목록	튀링겐 중앙목록
북 독일 중앙목록	메클렌부르크·포어포메른 중앙목록
노르트라인·베스트팔렌 중앙목록 베를린 종합목록	상호대차·중앙목록연구소(베를린)

로목록)을 설치하기로 하였다. 회의에서 결정된 중앙목록 파트너는 〈표3〉과 같다(牧村正史 1993, 107).

통일후 약1년동안 동서독의 상호대차는 평균180%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는데, 구서독측의 모든 상호대차요구는 동독의 상호대차 파트너에게 보내지며, 특히 동독 학위논문에 대한 요청은 논문이 수여된 대학으로 직접 보내어진다(Bleek und Mertens 1992, 315-326). 그러나 구동독의 공산정권은 1970년초부터 국가보안과 경제정책분야 등 수천권의 박사학위 논문들을 국가기밀로 규정하고 라이프치히의 독일도서관에서 특별관리하도록 하였으며, 학위수여 대학의 도서관에서도 이용자가 자유로이 접근할 수 없는 별도의 장소에 보관시키도록 하고 이용은 과학적 목적으로 국한시켜 극히 예외적인 경우에만 허용하도록 통제하였다. 따라서 이와같이 관리되어 온 논문들은 학위수여 대학도서관의 목록에는 물론 독일도서관의 국가서지에도 나타나있지 않은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Mertens 1994, 1-8).

뿐만 아니라 구동독에서는 출판사에서 서점이나 도서관으로 배포되는 모든 도서를 엄격히 통제(검열)하였는데, 특히 서방세계로는 비밀로 규정된 학위논문은 물론 동독 주요도시의 전화번호부 도서나 올림픽 대비 훈련서적 등 정치적으로 민감한 자료의 유통을 금지시켰다. 통일후 비로서 이러한 제한들이 해제되고 특별관리되어 온 논문들의 분석작업이 수행되고 있으며, 국내외에서 요구되는 정보의 접근과 상호대차가 보다 자유롭게 이루어지고 있다(Kilton 1993, 416-419).

현재 구동독에서 도서의 상호대차요구시 각 도서관은 소속한 중앙목록에 의뢰

표를 송부하며 중앙목록에서는 해당지역내에서 소장조사를 실시한다. 소장되어 있지 않을 경우에는 서독측의 마이크로목록으로 검색해 파트너지역의 도서관에 우선적으로 의뢰한다. 여기에서 소장사항이 확인되지 않을 경우 의뢰표를 파트너 관계에 있는 중앙목록으로 송부하는데, 중앙목록에서도 해결이 안된 의뢰표는 SSG-도서관, 최종적으로 국립도서관인 프랑크푸르트의 독일도서관에 송부된다.

잡지의 요구인 경우에는 중앙목록으로 의뢰표를 송부하여 잡지데이터뱅크(ZDB)를 통해 소장조사를 실시하며, 복수의 소장이 있는 경우 파트너지역의 도서관을 우선하여 의뢰한다. 잡지데이터뱅크에서 소장관이 없는 것으로 파악되면 해당분야의 SSG-도서관, 중앙전문도서관으로 송부하여 요구를 충족시킨다.

#### 4. 결 론

우리나라와는 역사적 배경과 분단과정, 전쟁, 상호교류 등 여러가지 측면에서 상이점을 내포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라 할지라도 분단국가라는 공통된 현실을 안고있던 독일이 통일국가로서의 모습을 되찾은 것은 세계사적에서 뿐만 아니라 아직도 분단의 아픔을 갖고있는 우리에게는 큰 의미를 부여하고 있다.

통일 자체가 냉전세계의 종식을 반영할 뿐만 아니라 이념과 체제를 달리한 두 개의 독일이 평화적으로 통합을 실현했다는 점에서 우리 한반도의 통일과정에도 커다란 희망과 교훈을 주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시대적 상황은 국가차원에서는 물론 우리도서관계에서도 통일후 야기될 수 있는 다양한 문제점을 점검하고 필요한 조치들을 강구해 두어야 할 필요성을 제기시키고 있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통일이후 독일의 도서관 현황과 문제점, 독일도서관계의 관심사와 활동, 그리고 정보서비스체제의 정비를 중심으로 최근 동향을 살펴보는데 의의를 두었다.

독일의 통일은 40여년간 염원해온 국민화합과 국토 및 정치적 통합의 과제를 해결하였으나 도서관계에는 효율적인 정보서비스체제의 구축을 위한 새로운 과제를 안겨놓았음이 분명하다.

통일의 후유증 극복과 증대된 정보요구에 대응한 독일의 도서관계에서는 기능적으로 유사한 도서관간의 조직적 통합과 협력의 증대, 국가서지의 통합 및 상호

대차제도의 정비를 통해 체계적인 정보서비스체제를 구축하고자 하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빈약한 구동독 도서관들의 장서확충과 시급히 필요로 되는 장비 구입에 대한 지원, 그리고 현직 및 실직사서들에 대한 재교육과정을 지원하는 활동 등에 전념하고 있다.

통일후 상호대차제도의 정비는 1990년 상호대차회의에서 이루어진 합의에 따라 동·서독의 지역종합목록을 중심으로 각 파트너별로 상호대차가 이루어지도록 하고 있는데, 근본적으로 상호대차규정의 보완을 통해 전 독일을 포괄하는 시스템 구축은 앞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로 남아있다. 이러한 과제와 더불어 상호협력을 촉진시키기 위한 보다 완벽한 정보서비스체제의 구축은 필요한 자금확보와 오랜 분단에서 야기된 양국의 현실과 모순이 평가·보완되는 작업이 선행되어야 하기 때문에 좀더 많은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 참고문헌

- 金子縁. 1991/6. “東獨司書連盟の解散と圖書館連盟の統合.” *カレント アウェアネス* (Current Awareness) 142 : 3-4.
- \_\_\_\_\_. 1991/1. “東西ドイツ圖書館の相互協力.” *カレント アウェアネス* (Current Awareness) 137 : 4.
- \_\_\_\_\_. 1991/7. “統計に見る東西ドイツの圖書館事情.” *カレント アウェアネス* (Current Awareness) 143 : 2-3
- 노문자. 1992. “통일독일의 상호대차제도에 관한 연구.” *도서관학* 23 : 303-349
- \_\_\_\_\_. 1994. “통일독일의 도서관 통합과정.” *도서관문화* 35(1) : 16-24.
- 牧村正史, 1993. “ドイツの全國相互貸借システム.” *びぶろす* 44(5) : 97-110.
- \_\_\_\_\_. 1992. “ドイツの中央専門圖書館の活動” *現代の圖書館* 30(1) : 12-18.
- 이진상 역. 1983. “동독의 도서관 시스템.” *국회도서관보* 165 : 52-65.
- 전광석. 1992. “동·서독 통일과 사회보장법.” *성곡논총* 23 : 1497-1536.
- 春山明哲. 1993. “情報資源としての國の藏書.” *情報の科學と技術* 43(6) : 543-545.
- 戸田典子. 1991/3. “2つのドイツ圖書館の統合.” *カレント アウェアネス* (Current Awareness) 139 : 4-5.
- Bleek, W. und Mertens, L. 1992. “Geheimgehaltene Dissertationen in der DDR.” *Zeitschrift für Bibliothekswesen und Bibliographie* 39(4) : 315-326.
- Braun, H. 1991. “Aus der Deutschen Forschungsgemeinschaft.” *Zeitschrift für Bibliothekswesen und Bibliographie* 38(1) : 73-77.
- Griebel, R. 1992. “Etatsituation der wissenschaftlichen Bibliotheken in den alten und neuen Bundesländern 1992.” *Zeitschrift für Bibliothekswesen und Bibliographie* 39(6) : 484-524.
- Herget, J. 1993. “The Transition Process to a Free Market Economy : A Case Study of Information Resource Units in East Germany.” *Journal of Information Science* 19(6) : 467-472.
- Hochsmann, D. 1991. “Erfahrungen und Erkenntnisse aus Kooperation und Arbeitsteilung wissenschaftlicher Bibliotheken auf dem Gebiet der neuen Bundesländer.” *Zeitschrift für Bibliothekswesen und Bibliographie* 38(4) : 359-367.

- Kilton, T. 1993. "Information Access with the Former East Germany: Book Procurement and Other Information Access Issues before and after Reunification." *Library Resources & Technical Services* 37(4) : 415-422.
- Mertens, L. 1994. "A State Secret-Dissertations in the German Democratic Republic." *Journal of Documentation* 50(1) : 1-9.
- Neubauer, K.W. 1984. "Online Information Service, Document Delivery Systems, and Libraries in the Federal Republic of Germany." *Information Technology and Libraries* 3(2) : 109-129.
- Polden, A. 1989. "Charges in Libraries: a view from the German Democratic Republic." *Journal of Librarianship* 21(4) : 270-278.
- Rusch, F.D. 1992. "Reciprocity of Qualifications in Practice: Equivalency Issues Affecting the Librarian and Documentation Professions in Germany after Reunification." *International Information and Library Review* 24(2) : 127-137.
- Stroetmann, K.A. 1991. "Management and Economic Issues of Library and Information Services: A Review of the German Literature." *Journal of Information Science* 17(3) : 161-173.

## ABSTRACT

**A Study on the Maintenance of the Library of Unified Germany  
and Its Information Service System**

Soon-Won Kim\*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review concerns and activities related to the library of Germany as well as to look over recent trends referred to the maintenance of the library and its information service system since the unification of Germany in 1990.

In fact, since the unification, many libraries in old East Germany have been closed with some precious books being lost. Also since most of libraries are short of funds and proper materials, it is real situation that they can not actively respond to the demand of information by library users who want to adapt themselves to changes, while only urgently requesting some support from old West Germany.

In the meantime, the new government and libraries of Germany are giving a great effort to building an efficient document delivery system through financial support for the expansion of books and the purchase of urgently necessary library equipments in the poor libraries of old East Germany and support for the course to re-educate the in-service or unemployeed librarians, and also systematic organization between similar libraries, integration of national bibliographies, and maintenance of the interlibrary loan system.

The nationwide interlibrary loan system, an expanded form of the system of old West Germany, allows the delivery of document to be easily performed, centered on both central catalogues for East Germany and West.

However, in order to build an efficient information service system which covers whole Germany, it seems there needs more time required.

---

\* Korea Manpower Agency, Library.